

21세기의 문제의식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사학의 모색

국사학과 채웅석 교수(한국중세사 전공)는 최근 한국중세사학회에서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발간한 학술교재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2018)의 편찬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논문 「고려 '삼한일통'의 다원성과 통합성」(2018)을 발표하고, 편저로 『고려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통합조절』(2019), 『고려의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2019),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 인식의 토대』(2019)의 세 권과 공저로 『고려왕조와 21세기 코리아의 미래유산 (1)』(2019), 『내일을 읽는 한·중 관계사』(2019) 등을 출간하였다.

이 논저들에 담긴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근대적 역사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21세기의 새로운 한국 역사학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한국중세사 연구에서 중심이었던 사회구성체론이나 지배층성격론 등은 일원적인 기준으로써 시대 성격과 역사 발전을 파악하는 방식이었다. 즉 한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기까지 하였던 개체(부문)들을 어느 하나에 종속시켜 통일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 일국사의 시야에서 역사를 파악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 세기에 한국사 연구에서 주류가 되었던 이론들은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으로 대표되는 일제 식민사학의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사 발전의 내재적 동인 즉 내적 역량과 계기만 강조함으로써 ‘국민국가의 역사상’ 구축 이상으로 역사인식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요. 이제 환경적·다원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지구촌사회·초연결사회가 된 21세기에는 그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일원적 역사인식과 발전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현실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일을 비롯하여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을 배려하면서 다함께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채 교수는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시대의 역사·문화 전통에서 확인하고 부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후삼국의 분립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다원성과 통합성을 고찰하여, 고려가 일통국가로서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담론의 토대를 다원성에 두었고 이를 위해 국초부터 여러 사상과 종교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며 제시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지방사회의 다양한 존재양태와 자율성을 배경으로 한 본관제 시행, 귀족제적 성격과 관료제적 성격의 병존, ‘삼한일통’ 의식의 이면에 ‘삼국유민’ 의식의 존재, 유학·불교·도교·풍수지리사상의 공존, 다원적인 국제 환경과 개방적 교류 등의 면모에 주목하여, 다원성과 통합성, 개방성과 역동성 등의 특징을 찾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다원성과 개방성을 고려시대의 주된 특징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현재 학계에서 지지받아 공유되고 있다.

“그런 연구가 갖는 현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21세기 다원화, 네트워크, 세계화 등의 추세 속에서 자율성 중시와 함께 상호의존 관계도 커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역량을 확인하고 고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었던 경험과 역량을 성찰함으로써, 현재 평화체제의 구축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논리와 기반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문화다원성·다문화사회 추세에 대응하면서 외국인 거류자들과도 공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역사·문화전통에서 확인하고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 교수는 2019년부터 「동아시아(한·중) 전통사회 재해 DB 구축과 사전편찬」 과제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다. 본교 인문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 및 사회와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해학’을 연구소의 중장기 전문화·특성화 주제로 택하고,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연구 프로젝트도 21세기의 시대정신 곧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과학기술과 자연환경의 조화 등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의 필요성, 환경 변화와 재해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인문사회 학문 기반 조성의 필요성, 재해문제가 로컬과 글로벌 영역 사이에 상호 연계된 점을 감안한 종합적·거시적 연구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여 기획한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는 1단계 3개년에 걸쳐서 시간적으로 고대(통일신라)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와 중국을 대상으로 삼아 재해관련 기록들을 총체적으로 집성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토대로 2단계 3개년 동안 재해용어사전을 편찬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인간과 자연환경 및 재해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성찰과 학문간 협력연구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약력 및 대외활동

현재 본교 인문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중세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강화고려역사재단 이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맡고 있다.

■ 최근 10년간 주요 저서 및 논문 실적

[저서]

《송원시대의 고려사자료》 1·2, 신서원, 2010

《韓國金石文集成》 35, 한국국학진흥원, 2012

공저, 《내포의 불교사상과 문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5

공저, 《신라의 사회구조와 신분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공저, 《쟁점 한국사》 전근대편, 창비, 2017

공저, 《21세기에 다시 보는 고려시대의 역사》, 혜안, 2018

공저, 《고려왕조와 21세기 코리아 미래유산 (1)》, 한국중세사학회·경기문화재단·인천문화재단, 2019

공저,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9

편저, 《고려의 다양한 삶의 약식과 통합 조절》, 혜안, 2019

편저, 《고려의 중앙과 지방의 네트워크》, 혜안, 2019

편저, 《고려의 국제적 개방성과 자기인식의 토대》, 혜안, 2019

[논문]

〈고려 중·후기 기로회와 개경 사대부사회〉 《역사와 현실》 79, 2011

〈고려말 권근의 유배·종편 생활과 교유〉 《역사와 현실》 84, 2012

〈『제왕운기』로 본 이승휴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2012

〈고려 인종대 ‘유신’정국과 정치갈등〉 《한국중세사연구》 45, 2013

〈고려중기 외척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 《한국사연구》 161, 2014

〈고려시대의 장류형과 경배형〉 《한국문화》 70, 2015

〈고려전기 사회적 분업 편성의 다원성과 신분·계층질서〉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고려전기 지방지배체제의 다원성과 계서성〉 《한국중세사연구》 47, 2016

〈한국 고대 향도의 조직과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81, 2016

〈Interstate Relations in East Asia and Medical Exchanges in the Late Eleventh Century and Early Twelfth Century〉 《KOREAN STUDIES》 41,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7

〈고려 최씨집권기의 보정(輔政)과 정치운영〉 《한국문화》 79, 2017

〈고려전기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문화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고려 '삼한일통'의 다원성과 통합성〉 《한국중세사연구》 54, 2018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and the Future of Goryeo History Research: A Look Back into the History of the Goryeo Dynas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21st century by the Korean Medieval History Society〉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2-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9

〈고려후기 사송(詞訟)의 범람과 국가의 대책〉 《한국사연구》 187, 2019